

## 세계평화와 한국학, 1919-2019

권헌익(Heonik Kwon), University of Cambridge

### I

오는 2019년은 뜻 깊은 해이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히 그러하다. 유럽에서 1919년은 이 지역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세계일차대전이 끝나고 파리평화회담이 열린 해인데 2019년에 이 역사적 사건의 백주년을 맞는다. 근대적 의미의 평화, 세계평화가 공론장에 등장하는 때였고, 약 이천만명의 희생자를 야기한 일차대전의 엄청난 파괴 이후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기릴 수 있는가 첨예한 논쟁과 더불어 이러한 전면적인 파괴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가 힘을 받을 때였다. 이런 환경에서 주지하듯이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이 형성되었고, 평화란 혼자 지키고 만들 수 없는 것, 여러 주체자들이 함께, 즉 만국이 함께 고민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18세기 계몽주의 전통에서(특히 루소와 칸트의 그 것) 제시되는 항구적 평화의 명제가 현실로 진입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이 진입 과정은 불완전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

더하여 1919년은 제국의 역사에서 분기점이다. 일차대전은 어찌보면 제국들의 전쟁,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기존의 제국들과 제국이 되고자 했던 국가들간의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제국의 변방,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이 이 전쟁에 동원되었었다. 나아가서 이 전쟁은 기존의 제국들(특히 영국과 프랑스)이 19세기 말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마침내 내리막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과정은 또한 새로운 제국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유럽 제국들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제국의 시대를 구성하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물론 일본과 독일도 이런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겠지만 현재적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유럽현대사의 전공자들이 제시하듯이 일차대전은 미국이라는 다민족국가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지역의 패권국가가 되었다가 이제는 제국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세기’, 아메리칸 센추리의 시작이다.<sup>1</sup>여기서 1917년 4월 미국의 일차

---

<sup>1</sup> 물론 미국의 세기가 과연 언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시각에 따라서는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곧 이어서 하와이와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19세기 말로 이 시작으로 논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William Appleman Williams, *Empire as a Way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동아시아 역사와 냉전 연구가들에게는 오히려 서양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두 전장에 양날개를 달고 참전하게되는 세계일차대전의 후반기를 새로운 제국의 시작이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전쟁의 기원 연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최근 저작에서 시작점을 좀더 당겨서, 미국의 대서양 접경 동부에서 태평양 접경 서부로 이주와 내적 점령의 역사를 미국 제국의 기원으로 제시한다: Bruce Cumings,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대전 참전 결정과 함께, 1919년 평화회담의 와중에 제시된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도 중요한 요소로 논의된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재까지 연구로는 후자가 더 적절하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은 또한, 에레즈 마넬라가 논하듯이 글로벌 역사에서 탈식민 역사(디콜로나이제이션)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논의되기도 한다.<sup>2</sup>

1919년이 유럽현대사의 주요한 전환점, 나아가서 글로벌 권력의 지평에 큰 지각변동이었다면 아시아에서는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기서 한반도의 3.1운동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역사적 현실의 자리에 비해서 글로벌 역사 담론에서 3.1운동에 주어진 자리가 아직까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3.1운동은 독일, 미국과 함께 후발 제국이었던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전개되었다는 특수한 환경적 요소가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일차대전에서도 소위 ‘승전국’의 지위를 획득한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일본의 이 지위는 일차대전 연구에서 독보적인 학자인 제이 윈터가 에디팅한 캠브리지대학 출판사의 일차대전 총서에 왜 일본 해군이 캐나다 밴쿠버 해안을 독일의 잠수정 공격으로 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게되었는지를 비롯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 잘 기술되어 있다.<sup>3</sup> 물론 3.1운동은 한반도에서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이름은 다르겠지만 동시대에 아시아 여러 곳에서 (베트남, 중국, 인도, 이집트등) 여러 곳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다. 나아가서 이는 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식민주의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여러 모습으로(예를 들어, 팬이스라미즘, 팬아프리카니즘)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었었다. 한반도 3.1운동과 가장 가까운 사례로 베트남에서도 1919년은 그들의 민족해방사, 현대사에서 큰 획을 긋는 시간대였다.<sup>4</sup> 한반도의 3.1운동에 상당한 자극을 받은 중국의 5.4운동, 그리고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일차대전의 유럽 전장에 동원되었던 귀향한 중국인 노무자들의 역할은 너무나 익숙한 역사적 사실이라서 부연할 필요가 없다.<sup>5</sup>

<sup>2</sup>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 of Anticolonial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sup>3</sup> See Paul Kennedy, “The War at Sea,” Jay Winter (ed.)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321-348.

<sup>4</sup> Mark Philip Bradley, *Imagining Vietnam and America: The Making of Postcolonial Vietnam, 1919-1950* (Durha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sup>5</sup> Guoqui Xu, *China and the Great War: China’s Pursuit of a New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를 논할때 다음의 두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다. 첫째, 3.1운동은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 의의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아시아의 영역에서도 그러하지만 글로벌 영역에서도 다른 여러 수많은 사건들과 함께하는 시대사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이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국지적인 여러 사건들이 실제로 교류내지 대화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중국의 5.4운동을 제외하고). 그렇지만 한 공유하는 시간의 정점에서 넓은 공간에서 각자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행동은 함께하는 동시성(simultaneity)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sup>6</sup> 한 나라가 만국의 구성 요소인 것 처럼 3.1운동 역시 만국의 움직임에 동참한, 말하자면 글로벌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독자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분이었다는 이 말이 그러나 3.1운동이 타 동시대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독자적이고 특수한 측면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3.1운동의 글로벌 역사 속의 의의는 함께 했지만 다른 여타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무척 특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과 연결된다.

## II

3.1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논할때 종종 ‘남녀노소 모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주 교과서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평화적 시위’라는 표현도 익숙하다. 시각적으로는 남녀노소가 섞인 군중이 급조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광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면서 만세의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각인되어있다.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한 연구가 점차 심화되면서 서울과 평양등 당시 한반도의 중앙의 지평에서, 혹은 하와이 한인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 한반도의 여러 지방에서 조직된 행사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한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 연구로 발전되어왔다. 나아가서 3.1운동을 이 운동의 전후 상황과 발달과정을 염두에 두는 보다 시간적으로 투터운 장에서 조명하는 연구들 등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sup>7</sup> 3.1의 정치사를 문학과 문화 영역에서 조명하는 연구, 3.1운동의 주체자를 운동의 지도자 층에 집중하는 연구에서 특정한 사회 세력, 예를 들어 여성들의 입지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도 있다.<sup>8</sup>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운동의 주체자들이 하나의 행위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단이 아니었음을, 다양한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자들이 다양한 의식과 지향성을 가지면서 함께 광장에 참여했음을, 즉 앞서 언급한 공간적 동시성(simultaneity)이 3.1의 글로벌 영역 뿐만아니라 이 운동의 안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명해서 3.1운동 연구는 중앙에서 점차 변방으로,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일

<sup>6</sup> 공간적 동시성(simultaneity)는 일차대전 문화사연구, 특히 당시 흥미했던 모더니즘 예술과 미학 연구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된다: Stephan Kern,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1880–191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sup>7</sup>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sup>8</sup> Michael Shin, *Korean National Identi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Yi Gwangsu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New York: Routledge, 2018).

체성에서 일정한 다양성으로 진화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잠시 지적했듯이 이런 연구 경향들이 앞으로는 민족사의 영역을 넘어서 글로벌 역사의 지평에서 3.1운동의 역사가 세계사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한국사의 중앙/변방 그리고 일체성/다양성이 글로벌 역사의 영역에서도 흡사한 구도로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남녀노소’와 ‘평화’라는 두 요소는 좀더 이론적인 조명을 요한다. 3.1운동이 형성한 ‘광장’은 20세기 정치이론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1958년 저작에서 논한 ‘공공의 세계(the public world)’와 아주 흡사하다.<sup>9</sup> 남녀노소가 평화적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 행위를 매개로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하는 행위, 그러면서 광장이라는 공간을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광장으로 만들면서, 그 공간을 그들의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행위를 통하여 국가와 제국의 점유물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행동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형식은 아렌트가 상상하고 주장했던 ‘정치적 행동’, 악타 폴리티카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다. 여기서 ‘말’, 말을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때의 말이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지 능력으로서의 말이 아니다.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사학적인 말과도 다르다. 이때의 말이란 현실을 재현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그 현실을 그 내뱉은 말을 따르고 그 모습으로 변화하게하는 지극히 능동적인 의미에서 근대 민주정치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정치적 인간의 기본 조건을 구성하는 ‘말’이다. 손을 드는 몸의 자유로운 제스처와 함께 ‘대한독립만세’ 혹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그 외침이 한사람의 목소리에서 여러 사람, 군중의 목소리가 되면서 그 외침의 말이 현실 세계에 구현될 것, 제국의 점유물이 된 공간을 작가 최인훈이 말하는 자유로운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으로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정치인 그러한 ‘말’이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의 연사와는 그 성격이 무척 다른 정치적 행위로서의 ‘말’이다. 그 말이 더이상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이 형성했던 광장의 모습은 집단기억으로 남아서 다시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기억 속의, 심연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말이다. 내가 내뱉은 말이 곧 내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광장의 주인이 되며, 그 광장 속에 있는 수많은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인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말하는 자들의 축제이다.

1919년의 시공간에서 좀더 전진해보면 이 기억이 어떤 모습을 갖는가 엿볼 수 있다. 글로벌 역사 속의 1919년의 의미는 1917년의 러시아 혁명(물론 이 사건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는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비유럽, 비서구 세계에 더욱 그러했는데 한반도의 민족해방의 역사에도 그러하다. 주지하듯이 민족해방운동이 수위 ‘자유주의’ 세력과 ‘혁명’ 세력 두 갈래 흐름으로 갈라지는 것

<sup>9</sup>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See also Melvyn A. Hill (ed.) *Hannah Arendt, the Recovery of the Public World* (New York: St. Martin's, 1979).

은 1919년의 봉기가 폭력적으로 억압되어, 결국 실패하는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상해임시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북쪽에서는 1919년 소년 김일성이 아버지가 준 총 한자루를 품에 숨기고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떠나는 사건이 그들 국가의 토대를 형성하는 에피소드, 건국신화로 이해된다. 유사한 이야기가 베트남 민족해방사에도 그 나라의 민족지도자 호치밍의 전기적 역사에,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당사의 영역에서 존재한다.<sup>10</sup> 192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붉은 혁명’ 4주기 행사에 조선, 베트남, 중국 세 나라의 대표단들이 각자의 언어로 된 깃발과 휘장을 갖고 참여한 것은 당시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소련은 이 모습을 그림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이후 제3세계 외교에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1919년은 유럽의 평화운동, 국제사회의 평화정치, 제3세계 탈식민 정치의 시작과 함께 제3세계의 탈식민 정치가 좌우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서 20세기 중반에 고착화 되기 시작한 글로벌 냉전의 정치적 기원이었다는 논지가 가능하다.<sup>11</sup> 한국 현대사에서 이 모습은 1947년 3.1운동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좌익과 우익 서로 다른 장소, 남산과 서울운동장에서 따로 진행된 것에 잘 보인다. 동시에 좌익이 주도한 행사가 당시 미군정에 의하여 제재와 탄압을 받게 된 것도 그러하다. 당시 제주에서는 서울과 달리 기념행사가 좌우익의 갈라짐 없이 도민연대로 이루어졌는데, 주지하듯이 이 행사가 경찰의 폭력에 직면하여 결국 1년후 4.3이라는 비극으로 전개되었다.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인데, 이 비극은 1948년 4월이 아니라 1947년 3월, 1919년 3.1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sup>12</sup>

제주의 1947년 3.1 기념식은 1919년 3.1이 그러했듯이 평화로운 시위였다. 평화의 ‘말’이 폭력의 권력에 대적하는 형국이었다. 이것은 중요한데 1948년 4.3이 폭력의 수단으로 폭력의 권력에 대항했던 것과 차별되기 때문이다. 평화의 요소와 더불어 1919년 3.1이 그러했듯이 1947년 제주의 3.1은 그 역시 ‘남녀노소’가 모두 ‘말’로써 광장에 진입하는 아렌트적인 정치 행위였다. 이때의 국가폭력 희생자가 소년, 어린 아이를 업은 여인이 포함되었음을 상기하면 이는 명확하다.

이 두 요소들은 오늘날 제주 지식인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듯이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의 대주제에 무척 중요하다. 1948-1953년에 제주가 겪은 폭력의 역사가 아직 진행 중인 역사이라면 1947년 3.1의 역사 나아가서 1919년 3.1의 역사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현재적인 역사, 이는 제주에는 말할나위 없겠지만 한반도의 식민주의와 내전, 냉전의 경험 전체의 역사적 지평에서도 그러하다.

나아가서 1919에서 1947로 이어지는 3.1의 역사는 세계사의 영역에서도 심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1919년이 글로벌 역사의 지평에서 탈식민 정치의 시작이라면 이 해방의 첫 걸음이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모습으로, 남녀노소 대중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들만의 광장을 이루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

<sup>10</sup> Mark Philip Bradley, *Imagining Vietnam and America: The Making of Postcolonial Vietnam, 1919-1950* (Durham,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sup>11</sup> Heonik Kwon, *The Other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sup>12</sup> 박찬식, 1947년 제주 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251 (2008): 255-301; 양정심, 1947년 제주 3·1기념대회 주도세력에 대한 소고, 4.3과 역사, 17 (2017): 183-236.

행되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다. 이 놀라운 ‘사실’이 아직 글로벌 역사 담론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고 이론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으로 한국학에 주어진 책임이다. 둘째, 비교사의 영역에서 1919년은 폭력과 평화의 투쟁사이다. 유럽의 환경에서 이는 1914-1918 엄청난 폭력 이후 18세기의 영구평화의 이상이 전면적으로 복구되면서 더는 이런 폭력을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또한 이 노력이 좌절되면서 1939-1945의 폭력으로 진행되는 실패한 평화의 역사이다. 1919년 파리에서 권력 세계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평화를 논할 때, 한반도에서는 가장 사회적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광장을 형성했다. 베르사이유의 평화와 종로 탑골 공원 혹은 제주 관덕정의 평화는 동시대의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로부터의 평화, 아래로부터의 평화, 혹은 외교 행위로서의 평화와 사회적 실체로서의 평화로 차별할 수 있다. 폭력의 주체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바꾸어서 이제는 평화를 논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말’로써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을 평화의 힘으로 만드는, 18세기 계몽주의 전통(특히 루소의 그것)에 전자와 비교해서 더 가깝고 오히려 그 전통에 적자(嫡子)의 모습을 보이는 평화이었다. 오늘날 국제교육·문화·과학 조직인 유네스코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계시민’적 평화 혹은 ‘평화의 문화’로서의 평화와 흡사한 평화이었다.

#### IV

1919년 광장의 평화는 열린 광장이기에 남녀노소 모두가 거기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을 발현했다. 반대로 1919년 베르사이유의 평화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말로써 만든 평화가 아니라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말을 쓰는 행위자들의 평화 담론이었다. 그런데 제주의 관덕정, 혹은 경상북도 안동의 구 조흥은행 앞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언어화 하면서 그 순간 자신이 세계시민임을 선언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들의 말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로 전해져 있는가? 이들의 말 속에 주권의 당위와 함께 평등의 당위가 있었음을, 즉 국가와 제국은 물론 민족의 틀조차도 제대로 답을 수 없는 존재적 지평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들의 정치적 주체의 지평을 어떤 정치이론의 언어로 자리지움할 수 있을까?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지피다 튀어나와 어떨결에 광장에 참여한, 그러면서 그녀 자신이 광장이 된, 또 실천하는 한나 아렌트가 된 그 여인에게 우리는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오늘날 어떤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의 자유로운 혼, 환희로운 표정을 어떻게 재현하여 이 땅의 나아가서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것이 1919년 백주년을 맞아서 세계의 인문사회학계를 위해서 한국학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다. 민주질서가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는 지금 이 때, 이 땅을 비롯해서 평화의 미래가 너무나 절실한 지금 이 순간, 한국학의 깊이 있는 평화연구가 간절하다.